# 우리 번역글쓰기의 지형도

전성기(고려대)

Jon. Sung-Gi. 2008. A Carthography of Korean Translation Writing, Textlinguistics 24. Today, "natural translation" has almost become a "superstition" for koreans. Human language is called also "natural language", but what is natural is rather "language competence", not language itself. Language is a social production, so is the writing. If we reconsider the history of korean writing we can recognize that the translation held a key role in it. In fact, the history of korean writing is largely a history of translation writing. That is why we need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korean writing through the historical carto-graphy of translation writing. For this purpose, we have chosen to observe, among many others, the problem of eonhae in Chosun Dynasty,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al novels and chinese historical tales, translation writing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ranslation writing in Modern Ages, and the problem of translationese, as main factors of this cartography. In doing this work, we relied partly on the "technique of compilation" found in Choi J.-M. (2004).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question could be avantageously carried in the field of "translational humanities", by the aide of translation criticism.

Key Words translation, adaptation, writing, style, eonhae, chinese classics, Enlightenment Period, Modern Ages, translationese, cartography

###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말다운 번역', '자연스러운 번역'은 거의 하나의 '미신'이 되어 있다. 1) 그러한 번역은 어떤 것인가? '애초부터' 있던 글쓰기를 따르는 번역이란 말인가? 애초부터 그런 글쓰기가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인간 언어를 흔히 '자연어'라 부르지만, '자연스레'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 능력이지 언어자체가 아니다. 언어는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다. 글쓰기 역시 사회적 역사적산물일 수밖에 없다. 우리 글쓰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번안을 포함한 번역이 핵심 내지 중심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번역글쓰기가 이루어져 온 추이를 살펴보고, 번역글쓰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번역글쓰기가 어떻게 '이타성'을 수용하고 '자기화' 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말과 우리말 글쓰기에 대한 생각도 사뭇 달라질 것이다. 번역글쓰기 문제는 근원적으로 텍스트와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번역의 문제일 뿐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비교문체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상호텍스트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표정훈은 그의 "몇 가지 지형도"라는 짧은 글에서, 지형도의 '地'를 '知'로 바꾸어 여러 동형어를 선보이고 있다. 2) 그는 '지식의 지형도'를 '다양한 학문 분야 및 주제들 사이의 상호 관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문 전통의 계승 과정,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개별적인 주제 혹은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 이런 것들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조감한다는 차원에서 쓰는 말'로 정의한다. 번역글 쓰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미의 '知形圖'를 그려낼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재로 서는 하나의 엉성한 거푸집, 하나의 '知型圖'를 그려보이는 수밖에 없다. 이 '지형도'는 평면도가 아니라 하나의 '시공간도'이나, 앞으로 번역글쓰기에 대한 이

<sup>1)</sup> 황현산(1986) 참고.

<sup>2)</sup> 지형도(知形圖: 앎의 모양과 세(勢)를 조망하는 그림); 지형도(知型圖: 앎의 틀 혹은 거푸집을 나타내는 그림); 지형도(知衡圖: 앎의 가치와 의미를 저울질하는 그림); 지형도(知형道: 앎을 구하여 똑똑히 깨닫는 길 / '言' 변에 오른쪽에 '同'이 있는 '형'); 지형도(知亨道: 앎에 형통하기 위한 길); 지형도(知鏊道: 앎을 갈고 닦는 길). [이상에서 '앎'을 '지식'으로 바꾸어도좋다.]〈http://www.kungree.com/pen/pencil94.htm〉

러한 '거푸집'은 번역글쓰기에 대한 '앎을 갈고 닦는 길'인 '知鎣道'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말의 구성을 살피는 하나의 '고고학 혹은 계보학적작업'이기도 하고, '말의 자연주의를 비판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3) 글쓰기 방법은 최재목(2004)이 말하는 '편집술'에 일정 부분 의존할 것이다. 이것이 단순짜집기가 아니라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하나의 '초대', 하나의 '초대의 수사'가되도록 시도할 것이나, 4) 현 단계에서 번역글쓰기에 대한 탐구가 다른 많은 저자들의 연구 성과들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얽어매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

#### 2. 언해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도 여러 차자 표기법이 존재했으나, 이 표기법을 일종의 번역법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소 엇갈린다.5) 그러나 차자표기법이 우리 번역글쓰기의 '선역사'는 될 수 있어도 엄밀한 의미의 우리 번역글쓰기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관동(2008:14)은 '1446년 세종의 한글 창제 이전까지는 중국의 한문을 우리의 문자로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번역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6) 본격적인 우리 번역글쓰기는 '언해'(諺解)와 더불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언해'는, 김무봉(2004:190)에 의하면, '훈민정음 창제 후 한문 문장을 우리말로 읽고 적기 위해 창안된 독특한 번역 양식이요, 인출 양식'이다.7) 저자는 국어학계에서는 갑

<sup>3)</sup> 황호덕(2007:173) 참고

<sup>4)</sup> 전성기(2007) 참고.

<sup>5)</sup> 양인종(2003:36)에 의하면, '郷札, 東讀, 東吐, 東道, 東刀, 東套 등으로 불린 한자 차자법은 대개 한어와 상이한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의미와 발음을 빌어 창출한 창작법이기도 하고 번역법이기도 하다'. 유명우(2002:15)는 한국의 번역이 '한문 차자법(借字法) 연구와 같은 고대와 중세의 국어 국문학의 연구는 한문이 한국어의 번역에 개입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번역학의 기초 연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sup>6)</sup> 김정우(2008:49)는 석의(釋義) 뿐 아니라 구결도 '일종의 번역 양식'으로 인정한다. 그는 '한 국어식 어순을 지정하는 역독점(譯讀點)이 덧붙여 있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생각된다는 석독 구결문에 대해 '의사번역'(pseudo transl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36-37).

오경장 이전에 간행된 한문 문헌의 번역본을 가리켜 통상 '언해'라 부르고 있으나 이는 15세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이라 지적한다. 실록에 '언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6세기 초반인 중종 때이고, 실록 이외의 기록에서도 1510년 대에 처음 나타날 뿐이며, 게다가 서명에 '언해'가 처음 쓰인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16세기말 교정청에서 간행된 유교 경서 언해부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6-7).

황호덕(2005)은 언해 작업이 '백성에 대한 사대부들의 작업으로서 계급적 인 성격 교화의 목적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말한다(80), '경서와 연관된 문자 체계로서의 언해문은 설사 그것이 국한문혼용의 것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시정 의 문제를 논의하는 문체로 쓰이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았'고. '국한혼용의 문자 체계는 창조의 차원이 아니라 해석과 주해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무자였으며 실제로 '읽는 책'은 경서였다'는 것이다(356), 배수찬(2006:358-9)도 '실제로 국무을 창제하고 그것을 이용해 문장짓기를 시험한 엘리트들은 자유로운 생각 을 쓴 것이 아니라 이미 한문으로 존재하는 서적을 번역함으로써 국문 글쓰기 의 모델을 만들어' 간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서언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의 한문 번역은 그 자체로 읽힐 것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한문 독해를 위한 참고 자료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고 한다 '자체적인 국문의 콘 텐츠를 갖고 있지 못했던 당대인들은 한문의 구결, 의역, 석의, 직역, 주역의 단계를 거쳐 국문의 내용을 형성하여 갔고. 그 가운데서 언해라는 독특한 글쓰 기 양식을 발전'시킨 것인데. '언해는 독음. 구결. 번역의 세 요소로 이루어지 며, 독음과 구결은 한문체를 국문 글쓰기체의 일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능 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8) 한편 여찬영(2006:20)에 의

<sup>7)</sup> 황호덕(2005:413)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백성과 치자(治者)들이 함께 쓰고 함께 생각하는 매체로서의 한글은 한 번도 상상된 적이 없'었으며, '훈민정음의 이해 역시 거의 훈민(訓民)보다는 정음(正音) 쪽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강조한다. '어린 백성이 쉽게 익혀 쓰는 글자'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극복해야 할 억견(臆見)이기조차 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sup>8)</sup> 김정우(2008:49): "이충구(1989:11-77)에서는 고려말부터 약 540여 년간 이루어진 한문 경서(經書)의 한국화 과정(=해독 내지 번역)을 구결→의역→석의→직역→주석 등 5단계로

하면, '언해문의 한자어는 한문 원문의 한자를 고대 한어 번역의 어휘 처리 방법의 하나인 연용법에 의해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언해문의 연용적 한자어 과다 사용'은 '원문의 원의 유지'라는 목적 이외에 '화용적 측면'에서 '번역자가 상정한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언해서들의 번역상의 특징에 대해 김무봉(2004:179)은 '후민정음 언해본 이후 잇따라 간행된 대부분의 불전언해본들'이 '앞 시대 구결불경의 영향을 받 아서 직역 위주의 문어투 문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는 창제 직후의 국문자 보급과 관련하여 왕실 등의 중앙 관서가 직접 개입 한데다가 자유로운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9) '또한 당시의 불전언해본들은 대부분 한문불경에 언해문을 대응시킨 번역 양 식 이른바 대역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 방식으로 인해 의역을 할 경우 워의를 손상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의 그의 추정이다 저자는 '언해가 우리 나름의 독특한 번역 양식으 로 자리 잡기는 하였지만 한자어가 많고 번역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한 다음 '비록 정음이 표기되어 있다고는 해도 당시의 일반 민준이나 신 도들이 어떻게 이용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208)며 언해 독자의 제한적 성격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강식진(1999)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약 50년 간에 40여종 200여 권의 번역서가 나오게 된 것은 한문 식자층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일반에게 훈민정음이라는 쉽고도 실용적인 문자로 보급하자는 당시 집 권층의 깊은 배려라고 할 수 있다'며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한편, 심경호 교수

설정하고, 구결과 의역과 석의를 경문 해독의 최종 단계인 직역(=언해)에 이르기 위한 예비 단계로 보았다"

<sup>9)</sup> 김학주(1988:171-2): "조선시대의 유교 경전 번역의 경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초기의 권근의 사서오경에 대한〈定吐〉나 유숭조의 칠서에 대한〈諺解口讀〉은 말할 것도 없고, 이율곡의〈四書證解〉및 선조조의〈四書五經證解〉가 모두 칙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유학을 나라의 정치이념 및 사회의 윤리기강으로 받들어 온 조선에 있어서, 그 경전들에 대한 독법에서부터 뜻의 해석을 통일하려 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성현들의 말씀이라고 전하여지는 경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통일된 방향 이외의 이론은 거의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는 '언해나 최소한의 현토를 하여야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의식은 분명히 고려말 조선 초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하며, '조선에서는 왕과 신하의학문 및 현안 토론 기구인 경연에서 언해와 현토를 끊임없이 개정하였고, 일반지식인들도 그 작업에 직간접으로 간여하여 왔'다고 지적한다. 경전 번역의 경우에도 성현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명증한 이해를 위해현토와 언해를 시도하여 왔다고 해야 옳을 듯하다는 심 교수의 견해는 일반적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10) '자유역'을 하고 있는 飜譯小學 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해가 '직역'을 하고 있는 것을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한문 독법의 전통' 때문인 것으로 보는 이기문(1988:355)의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김미형(2003a:7-8)은 언해문이라는 번역문이 '메타의사소통적 번역관'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기술한다. '한글을 사용하며 이루어진 우리 문장의 시작은 한문 문장의 번역으로 이루어진 언해문이었고, 언해문은 번역이라는 특별한 의식 속에서 발생함으로써 의고체(擬古體)라고 하는 문체적 특징을 띠게' 되는데,이 때 작용한 '특징적인 번역관'은 '메타의사소통적 번역관'과 '구조등가적 번역관',이 두 가지였다고 한다. '메타의사소통적 번역의 틀'이란 '하나의 텍스트를 의사소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사소통 체계로서 이루어진 번역이란 뜻으로,이 번역의 틀에서 우리 문장은 구연조(口演調)의 성격을 띠게' 되며,이 것이 '의고체의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11) '현대 번역은 출발언어의 존재를 잊게 하는 목표언어의 구현을 번역의 이상으로 여기지만, 15세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따라서 메타의사소통으로서의 번역 인식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러한 메타의사소통적 번역관으로 인해 형성된

<sup>10)</sup> 개인적 문의에 대해 메일로 이러한 답을 해주신 심경호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sup>11)</sup> 김미형(2003a:17): "(···) 한문 문장의 번역문에 쓰인 종결형 '-라'형은 한문 구절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남에게 그 내용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라'형 대신에 '-다'형으로 바꾸어보면, 한문 구절의 내용이 자신의 의도 표현이거나 단정 표현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곧, 이두 형태는 화행적 기능이 다른 것이다. '-라'형태는 그 문장 전체를 들어 이것을 청자에게 제시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어의 종결형 '이라'를 한문 문장의 명제와는 독립된 상위 술어의 위치에 있게 한다. 반면에 '-다'형태는 서술어의 종결형 '이다'를 한문 문장 명제 속의 한 구절에 걸리는 술어로서 인식되게 한다."

우리 문체'가 '우리말 문어 문장의 정형이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후 번역의 장르가 아닌 창작 장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면, 12) 우리말 글쓰 기 역사에서 언해의 영향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3)

### 3. 중국고전 소설/야담 번역

우리 번역사에서 중국고전소설 번역 문제는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온 분야 이다 14) 민관동(2008:14-16)에 의하면 최초의 중국고전소설 번역은 중종 38년(1543)의 유햣의 - 列女傳 - 이고 명종(1545-1569) 년간을 전후한 - 太 平廣記證解 인데 전자는 조정의 예조에서 그리고 후자는 당시의 문인층 인 사가 번역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그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로 중 국통속소설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독자층 또한 한문을 해독할 수 없는 일반 서민이나 부녀층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독자층의 확대는 통속연의 류 소설에 대한 번역의 활성화로 연결되었고. 당시 이러한 활성화에 18세기 전후로 출현한 영리추구가 기본 목적이었던 '세책업과 방각본소설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후 '꾸준히 번역이 이루어져 조선시대 번역소설은 대략 60여종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번안류 소설까지 합하면 근 100여종'이 넘는데, '이들 대부분의 소설은 대략 17-19세기에 번역 혹은 번안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번역 • 번안의 주체는 주로 '과거에 실의한 빈궁한 문사들'이었고. 여기에 '조선 말기로 오면서 이들 외에도 역관들'이 가세하였다고 저자는 지적 한다. 저자는 중국고전소설의 번역 목적을 크게 '교화', '흥미와 관심에 의한 소 장 욕구', '영리 목적', '환심 목적' 네 가지로 나누는데, 역관들이 '궁중의 여성

<sup>12)</sup> 김미형(2003b:80): "15세기 이후 20세기 초엽까지 내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문 문헌 자료, 곧 경전의 언해문, 소설, 기사문, 논설문에 나타난 문체는 결코 내간체 문제를 닮지 않 은 언해문 문체였다. 그러므로 15세기의 언해문 문체가 현대성을 결여한 우리 문장의 기본 적 전형을 이루었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sup>13)</sup> 유명우(2002), 김정우(2008) 참고.

<sup>14)</sup> 이에 대한 언급은 김정우(2008)에서도 빠져 있다.

층 독자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번역을 하여 윗전에 바쳐 '궁중에 모여진 한글 번역본과 필사본이 4,000책이나 되었다'고 하니, 중국고전소설들의 번역/번안 의 우리 번역글쓰기에 대한 기여가 그 실상에 비해 지나치게 홀대받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번역을 '형태에 따라 번역 ·번안 ·재창작 등'으로 구분하고 '번역의 분 량'에 따라 전문번역과 부분번역으로 나누며 '번역의 질량'에 따라 '완역과 축 역' 그리고 '번역의 기교'에 따라 '직역과 의역'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당시의 번역은 '흥미본위'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독자들을 즐겁게 하면 그만이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의역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래서 '줄이고, 보태고, 고치 고, 해도 그만이었다'는 것이다. '독자는 번역인지 창작인지 가릴 필요가 없었 다'는 것이다. 그래서 '번역과 번안의 관계가 더욱 모호해졌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특히 '한 작품에도 번역부분이 있고 번안부분이 엄연히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번안으로 구별되는 작품을 제외하고는 구태여' 번역작품 과 번안작품을 구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자는 판단한다. 또한 저자 는 '국내 중국고전소설 번역본 가운데는 비록 원문의 서문이나 개장시·삽입시· 산장시 및 회후평 등과 상투어가 대부분 생략되었으나 그 외의 것들은 비교적 원문에 충실하게 의역 및 직역으로 시종일관 번역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기술 한다. 번역기교 측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원전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가급적 직역을 피해가며 평이한 의역으로 꾸며진 작품이 많다'고 평가하면서도 '시대적 차이가 문화 환경의 차이로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거 나 번역하기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해 버리는 부분도 종종 발견 된다'는 단서를 단다(21-23) 15)

김동욱(2006:121-122)은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번안은 일본과 서구의 작품들을 받아들인 일련의 신소설 작품에 나타난 것으로 간주했었'는 데, '이후 학계에서 삼국지연의 와 관련하여 한중 소설 사이의 번역 또는 번 안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그후 '번안소설에 대한 비교문학적인 연구가

<sup>15)</sup>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에 대해서는 박재연(1993) 참고.

활발히 진행되는 한편, 번안문학을 하나의 창작으로 인정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평가'를 내리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소설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소설의 원천으로 통설화 되어 있는 설화, 그 가운데서도 문헌설화 혹은 야담의 경우에도 번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반 주목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번안야담의 문학적 의의를 가늠해 보고자'했다는 것이다. 다른 글에서 저자(2007:33)는 '지금까지 우리의 소설사에서는 설화를 바탕으로, 또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에서 소설이 형성된 것으로말해 왔'는데, '그러한 과정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부분적으로는 번역과 번안을 통해 설화, 야담 등의 이야기나 소설이 형성된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번역된 이야기나 번안설화, 번안야담의 문학사적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앞의 글에서 저자는 '중세 해체기부터 근대 형성기 사이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소설의 형성과 성장과정'에서 '번역과 번안의 문제가 결코 도외시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소홀히 지나쳐 왔'다고 비판한다(138). 그는 '중세 후기 이 땅의 작가들'이 '소설을 포함한 중국의 이야기를 단순 언해 혹은 국역하는 차원'에 머문 것은 아니라 지적하며, '그 구체적인 번역과정'을 내용이번거로운 곳은 축약하거나 생략, 간략한 곳은 부연, 풍속이나 언어의 차이가있는 것은 고치고 윤색하였다고 설명한다. 당시에는 번역과 다른 번안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소설과 소설 사이에만 일어난것이 아니라, 야담과 야담 사이에도 일어났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는 '1차적으로는 소설을 포함한 중국의 서사체를 원천으로 하여, 첫째와 둘째의과정을 거쳐 첨삭을 가한 단순번안의 야담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창의적 변형을 가한 부분적 번안의 단계를 거쳐 환골탈태적 번안야담에까지 이르렀으리라는 것'이 자신의 '지론'이라 피력한다(138-9).

조동일(1999)은 동아시아의 번역사에서 확인한 1) 원문을 그대로 읽기 위한 일차적인 번역, 2) 원문 번역을 자국어로 옮겨 적는 이차적인 번역, 3) 번역하면서 개작하는 삼차적인 번역을 구분한 바 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중세

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번역방법으로, '흥미본위의 문학인 소설은 원문에 충실할 필요가 없고, 번역임을 밝히고 번역하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었'다고 기술한다. 16) 이를 인용하는 김동욱(2007:32-3)도 '외교문서나 학문적인 성과의 번역에서 비롯하여 시문의 번역으로 이어지던 것이 중세후기에 이르면 이야기의 번역과 번안으로 확대되다가 마침내 소설의 번역과 번안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그 변천과정이라 기술한다. 저자는 시문의 번역 단계까지는 대체로 축자적 번역이 이루어졌겠으나, 이야기의 번역 단계에서는 흥미를 위해, 낯선 분위기를 친숙한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개작적 번역', '단순 모방적 번안'을 하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 이야기나 소설의 주제 의식까지 달리하는 '환골탈태적 번안'도 시도하게 되었다고 번역에서 번안으로서의 전환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변안작품들의 '문학사적 의의'는 변안의 '번역글쓰기'적 측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번안에 대한 글들은 대개 번안작품의 내용과 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번역글쓰기 측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명확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개화기 시기의 번안에 대해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정하영(2000:66)이 지적하듯이, 우리 고소설17)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소설의 번역이나 번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번역글쓰기 연구를 위해서는 언해 못지않게 중세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시기의 작품들의 번역, 특히 번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른바 '낙선재본들'을 비롯한 여러 고소설에 대해 번역과 창작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여러 경우가 있었고 또 있다는 사실은 우리 번역글쓰기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번역글쓰기의 지형도 고찰에는 중국고전소설이나 야담의 번역문제 이외에 우리 한문소설 국역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18) 이제 '텬로력뎡'을 번역문학의 효시로 보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19)

<sup>16)</sup> 김동욱(2007:7).

<sup>17)</sup> 우리 고소설은 15-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재영(1998) 참고.

<sup>18)</sup> 권혁래(2004) 참고.

<sup>19)</sup> 김동언(2001:2)에서 재인용.

## 4. 개화기 번역글쓰기

김동언(2001:2)은 '개화기<sup>20)</sup>의 번역 작품은 번안 혹은 초역이 대부분이고, 완역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원서로부터의 번역보다는 일어 내지는 중국어역의 중역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권보드래 (2003:375-6)도 '한국의 근대가, 또한 근대의 언어와 문학이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19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창작된 신소설에서 번역·번안의 비중은 절대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정선태(2006:27)는 근대계몽기에 초점을 맞출 때 '다른 나라의 말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라는 번역의 정의는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중적 또는 삼중적 문자체계하에서 번역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한 나라안에서 생산된, 다른 문자로 씌어진 텍스트를 또 다른 문자로 번역하는 현상이벌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문체로 씌어진 것을 국한문체로 '번역'한다거나 국한문체로 씌어진 것을 국문체로 '번역'하는 예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활발한 '언어내 번역'의 경우는 세계 번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경우가 아닐까 생각된다.

신지연(2006:19)은 '이해를 못하는 독자들이 상정되면 쓰는 자(번역자)와 읽는 자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때 번역되는 것은 열등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경계가 지어지며, 쉽게 번역될 수 없는 부분들은 삭제되거나 왜곡된다'고 말한다. 이어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근대적인식 체계 속에서는 번역된 내용이 아니라 번역이라는 양식 자체가 계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저자는 말하는데, 이러한 '계몽성'은 개화기번역 양식의 중요한 특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은주(2004:62-3)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번역은 필연적으로 '어떤' 언어로 '어떻게' 번역하는냐의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무엇보다 근대적 언어의 정비 작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sup>20)</sup> 개화기는 일반적으로 1876년 개항부터 1910년 국권 상실 때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민현 식(1994:39), 홍종선(1996:33) 참고.

되며 더불어 그러한 근대 '국어'의 형성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근대적 매체 교 육 제도 등을 매개로 근대 국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과 궤를 같 이 한다"고 파악한다 '주선의 근대화 과정을 번역과 관련시켜 볼 때 피학 수 없는 문제는 결국 그것이 서구문명의 직접 번역이 아닌, 중국, 일본을 거친 간 접 혹은 이중 번역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인데 21) 이러한 중역 과정은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피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이러한 중 역을 해방 이후 특히 70년 이후의 중역과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어떤 언어'로의 문제는 주로 이른바 '문체'의 문제이다. 김현주(2001:2)는 유김준이 서유겨무 윽 쓰면서 '어떻게 번역학 것인가'의 무제륵 여러 각도에 서 고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한문의 혼용 역시 번역 방식에 대한 고민의 결론이었'으며 서유견문 에서는 비단 어휘만이 아니라 문장과 문체에 이르기 까지 '번역'이라는 문제와 관련지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황호덕(2005: 291)도 '순한글체 혹은 국한문체의 공적 담론으로의 편입은 쓰는 행위보다는 번역하는 행위 속에서 관철'된 것이고. '한성주보 의 순한글체·국한문체 기사' 도 '씌어졌다기보다는 번역된 것 되받아쓰인 것'이었다고 기술한다. 구인모 (1998:74-5)도 '국한문체는 설명적이거나 논증적인 기술 방법에 적응하는 문 체로서 자연스럽게 정착되었'고 특히 애국 계몽기의 지식인들에게 국한문체는 '신학문의 보급을 통한 민지(民智)의 계발'이라는 그들의 목표에 잘 부합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저자는 '국한문체의 탄생이 신흥 지식인들이 외국의 지식을 번안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화기시킨다 22)

<sup>21)</sup> 김병철(1998:75): "개화기 당시의 우리 번역문학의 원류는 서양인에 의하여 씌어진 작품이라 할지라도 한역본 내지 일역번의 중역이었다는 것을, 특히 일역본의 중역이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개화기에 있어서의 서양문학 번역의 전신자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학지식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작가·작품의 이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곧 그대로 수용태도에도 반영된다. 완역·축자역이 극히 적고 당시의 일인이 서구문학을 수용해 들일 때의 태도인 번역·초역·의역·역술·경개역 때위가 그대로 우리의 수용태도로 통용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해주는 증좌이다."

<sup>22)</sup> 니린지(2000:81): "국한혼용체의 성립 근거에 대해서 김윤식은 일본문체의 영향, 양계초

신지연(2006:23)은 심재기가 '국문과 한문 사이의 스펙트럼'을 살핀 한 글에서 '약간의 단서와 함께 오늘날의 국문체 문장이 일단 한문체 문장의 해체화과정의 최후 종착점이라는 가설을 세운 바 있'음을 언급하며, '글이 정보 전달체계로 인식되는 지점과 번역이 일반화되는 지점은 많은 부분 겹쳐진다'는 중요한 지적을 한다. '이 시기의 글들이 거칠고 허술하다면, 그것은 사유의 거칢과 허술함 이전에 번역 기술의 문제로 돌려져야 하며, 번역 기술의 문제로 돌려지기 전에 원본과 번역본 사이의 먼 거리가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문식으로 사유한 것을 한국어문으로 옮기는 것은 중세의 질서를 근대의 질서로 재조직하는 작업이며, 근대의 두 외국어 사이보다 더 넓은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당시 사유와 글쓰기의 문제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sup>23)</sup>

'어떻게의 문제'는 '어떤 언어'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권용선(2004: 53)은 '결국, '중요한 말'은 그 말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양의 문명'을 번역해야 했던 근대 초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경험했던 공통된 딜레마였다고 지적한다. 황호덕(2005:287)은 '특히 한성순보

문체의 영향, 개화기 지식인의 계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측면 가운데 일본문체의 영향과 양계초 문체의 영향이 모두 번역과 관련된다는 점을 보면 번역문체가 개화기 문체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양계초의 서술을 포함한 중국어로 된 서식을 번역할 때, 국한혼용체는 가장 효율적인 문체였다. 양계초의 서술을 국한혼용체로 번역할 때, 내용의 전달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원전의 문체를 살리는 데로 도움이 된다." (…) "물론 원전의 문체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볼 때, 국문체로 번역된 양계초의 저술에서는 원전의 어휘나 문장구조가 국한혼용체보다 더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sup>23)</sup> 신지연(2006:23): "이 시기 글들의 특성은 "축적과 집합의 메커니즘"이란 말로 설명된 바 있다. 조선의 후진성과 전면적 결핍에 대한 조급함이, 글의 논리를 섬세하게 구축하도록 하는 대신 사회 개혁과 계몽 촉구를 무차별적으로 강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대 지식인들의 의식을 해명하는 좋은 해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교하게 숙련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중세 보편 언어에 의지해야 했다는 점, 근대인의 인식틀로는 이 보편 언어로 표현된 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중적 소통을 지향하기 위해 한문으로 구상된 의미 체계가 번역이라는 계기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글쓰기로 물질화되기 위해 번역이라는 생경한 작업을 몇 차례나 치뤄내야 했던 문장들이 앙상한 요약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약적 계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와 한성주보 에서 일본 신문의 번역을 맡았던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일본 문장에서 가나만 한글로 바꾸자 갑자기 편리함이 드러났다고 한 진술은 번역에 의한 에크리튀르의 창안이라는 논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는 '한문과 한국어가 통사론과 그 이상의 표상의미론의 문제로서 좀더 복잡한 면이 있었던 것에 비해, 일본 문장과 한국어는 일종의 코드-스위칭의 문제로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한자를 그대로 두더라도 통사론적인 구조만 일본어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한글을 첨가할 경우 바로 읽힐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장이 된다'는 것인데, 개화기 번역의 '어떻게'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자는 에크리튀르를 '어느 개인에 의해 창출되지는 않'는 '역사적 위기와 관련된 연대의 산물'로 보지만, '개인의 것이 어떤 종류의 연대나 공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코드-스위칭'을 황호덕(2005)은 근대 국어 성립의 중요한 계기의하나로 본다. 그는 '가령 국내 기사의 국한문체가 주로 왕의 칙유 등을 통사론적으로 재배치한 문장이었다면, 외보의 국한문체는 일본 신문에서 한자를 그대로 둔 채 부속성분을 코드-스위칭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야말로 '번역으로서의 한국 근대의 특징적인 면모이면서, 근대 국어 성립의 중요한계기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303). 예를 들어, 한성주보 의 국한문체는 어느모로 보나 틀림없는 번역의 산물'로, '이 번역은 글자 자체를 한국어로 푸는 일이 아니라 주로 한문의 어휘를 쪼개어 한국어의 통사론적 체계로 재배치하는일을 의미했'는데, '이러한 통사론적 재배치는 결코 녹녹치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국어 어순에 의한 통사법상의 재배치는 한자 표상의권위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듯하면서도, 한'문'을 한'자'로 강등시키는 기능을수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97). '결론적으로, 국한문체는 기본적으로 번역이 문제'였는데, 그 번역은 첫째 '언해(診解)라는 계급적 속성을 갖고 출발하였'고, 둘째 '문명 이해를 위한 문명론적인 속성'을 가졌는데, '칙유와 외보라는두계기를 통해 국한문체가 공적 담론에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303).

그렇기에 저자는 '언문으로서의 한글은 존재했지만, 국문은 발견된 것'(308)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자에게 '국어란 번역된 것이면서 동시에 창안된 것'으 로 그런 까닭에 '우리의 것(我文)이면서 동시에 타자의 것(輯術)'의 수밖에 없 다(363),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번역'은 어떤 것을 뜻할 수 있겠는가? 신지연(2006:21-2)은 '번역이 글쓰기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한문으로 구상한 후 그것을 한국어문으로 번안하는 방식 을 통해 글을 작성'하거나 '한국어문에 대한 경험이 없던 김동인이 일본말로 상상하고 조선말로 글쓰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씌어진 글들은 구상 단계의 질서와 글쓰기로 실현된 질서가 다르다는 점에서, 원문이 물질적 텍스트로 존 재하지 않더라도 번역이 글쓰기의 한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한문 통사 구문이 적극적으로 해체되면 될수록 그 글은 한국어문에 가까 워'지나. '한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품위 역시 그 해체가 적극적이면 적 극적일수록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쉰고 평등하려면 왜곡되고 깊고 품위 있으 려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새로운 글쓰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어려서부터 몸에 익은 한문 감각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유학자 지식인 계층의 혼란과 난감함은, 이 양날의 칼 같은 '번역성'에서 나'은 다고 저자는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의 계기는 한번의 개입에 멈추지 않 았다. 당대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던 양계초의 저술은 이미 일본의 번역서들을 한문으로 다시 번역한 것이고. '그 저술들은 조선에 널리 유통되기 위해 다시 현토가 붙었으며, 현토본은 또다시 국문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한국어문이 만들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번역 작업이 개입되었는가' 짐작하게 하는 '좋은 사례'이다

한편, 박진영(2004:200-1)은, '왜색신파'니 '통속위안'이니 하는 기이한 조합의 수식어들이 드러내듯이, '번안'은 늘 이중의 모방이자 두 겹의 이식으로 여겨져왔다고 지적하며, '그 자체로 한국의 근대와 근대문학이 거쳐 온 굴곡을 표상하는 이 문학사적 사생아는 종종 불순하고 음험한 의도를 지니고 틈입해들어온 식민지적 특수성의 한 표현에 불과할 뿐'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에

대해 적어도 '조즛화은 1900년대와는 다른 기반 위에서 매우 자각적이고 의 식적인 번안 활동을 펼쳤으며,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썩 다른 태도를 보 여준 드문 사례'로 가주하다 저자는 '대중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던 루 와 잣한못 '의 분석을 통해 그의 '번안적 상상력'이 '문학(소설)을 번역한 다'는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신문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로운 감각과 읽기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224)고 설명한다 '소설'은 '소 설'로 번안되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이제 소설로 '번 역'되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소설(novel)이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비롯된 것인데 이는 '조중환의 번안소설이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담당한 최대 의 문학사적 공적이라고 그는 평가한다. '무정 은 그 길목들을 고루 거친 뒤 에야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226).<sup>24)</sup> 박진영(2007a)에게 1910 년대부터 1923년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레미제라블 의 다줏 번 안은 한국 근대 번안소설사의 성격과 의의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축 도'이다. 이 시기는 대략 한국 근대소설어 성립 과정에 해당되는 시기로, 번역 및 번안이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매일신보 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다 른 글에서 박진영(2007b)은 강조하고 있다.

### 5. 근대 번역글쓰기

여기서의 근대는 개화기 이후 20년대 30년대를 거쳐 해방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서은주(2004:63)는 '근대 초기의 번역이 계몽성이나 대중성을 표방하여 번역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의식이 없는 번안, 의역, 경개역, 초역 등이 지

<sup>24)</sup> 박진영(2004:226-7): "변안이라는 실천은 단순히 번역과 창작의 위계질서 속에서만 설정 될 수 있는 특수한 행위라기보다는 언어와 관념의 위치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매개이자 역사적인 기제이다. 일본 메이지 문학의 강력한 자장 안에 놓여 있던 한국 근대소설 사는 이 점에서 보다 민감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소설(novel)'이라는 관념에서부터 장르와 양식, 그리고 문체에 이르기까지 '번안'된 형태로서 새롭게 '창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배적이었음에 비해, 20년대로 갈수록 중역이나 초역의 무책임한 번역 태도를 지양하고 원작명이나, 원작자, 역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문학 의 창간은 외국문학작품의 번역이 어느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외국문학에 대비되는 대타항으로서의 조선문학을 의식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서구의 외국어에 상응하는 조선어의 확장과 정비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적 번역과 관련해서는 좁은 의미, 즉 엄밀한 의미의 번역과 넓은의미의 번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번역글쓰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의 구분도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sup>25)</sup>

김경수(2007:222)는 기존 연구들이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기에 활동했던 많은 작가들'이 '번역 소개된 외국 문학작품들을 자신들의 문학적 자양으로 섭취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고 말한다. '춘원과 현진건, 그리고 박영희와 주요한 등 근대문학 초창기에 활동한 많은 작가들이 외국소설을 여러 지면에 번역·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 '이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문학적 수련의 일환으로 외국 문학작품의 번역에 나섰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26) 안영희(2006:268)는 '한일근대문학은 서구의 영향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당시 번역은 한 나라의 말을다른 나라의 말로 옮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문체를 근대적인문체로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였다'고 지적한다. 윤대석(2007:314)도 '일본어로 구상하고 그것을 한글로 옮기는 머릿속 번역을 시도한 김동인은 물론, 카프, 30년대 모더니즘 등 새로운 소설문법은 모두 번역을 통해서 가능했'다고말한다. 저자는 '넓은 의미의 번역은 개별 작가들의 습작에서도 잘 드러'나는

<sup>25)</sup> 윤대석(2007:314)은 '번역은 근대 초기에만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 내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번역이란 외국어 문학을 한글로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의 새로운 소설문법을 전용하여 한글 창작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번역 행위는 작가들의 개인적 창작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새로운 소설문법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저자의 평가이다.

<sup>26)</sup> 김경수(2007)는 염상섭 또한 그렇게 서양 문학작품들로부터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함양하고 그로부터 독창적인 자신만의 문학적 기법을 발전시켜 나간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본다.

데, '구상은 일본어로'한 김동인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작가들이 '한문→일본어 →한글'이라는 과정을 거쳤'으며, 한설야·유진오·이효석 등도 '일본어 습작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한글 창작을 시도했다'고 한다(315). 이러한 '번역' 양상은 '광의의 번역'의 경우이다.

'일본을 경유한 근대의 번역'에 대해 정선태(2004:94-5)는 이것이 '문학텍스트의 에크리튀르에 혁신을 초래했'으며, '번역이 번역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근대소설을 가능케 한 핵심적인 요소인 글쓰기의 변화를 추동했고, 이광수의 「헌신자」에서 볼 수 있듯, 창작으로까지 이어졌다'고 그 궤적을 기술한다. 저자는 '그 변화를 번역이 전적으로 담당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나, '번역이 한국 근대소설 문체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유길준에서 이광수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체를 선택할 것인 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문학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문체를 실험해왔'는데, '잡지 소년 에 이르러 소설 문체의 근대적 성격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고27) 저간의 사정을 일러준다. 그는 '근대적이라고 해서 다른 문체보다 낫다거나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순문학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소설 문체 또는 번역된 문학에 어울리는 문체를 발견했고, 그것이 향후 한국 근대 소설 문체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따름'이라고 '근대적 문체'의 성격을 부연 설명한다.

양문규(2005:148-9)는 1910년대 소설이 이전의 신소설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을 그리는 단편 양식이 근대소설로서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데, '이러한 양식의 등장은 언어의 측면에서 자국어는 자국어로되, 순국문 대신 국한문 혼용체를 선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이러한 국한문 혼용체의 선호는 일본의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지식인의 서구에 대한 맹목적 추수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는 '새롭게

<sup>27)</sup> 정선대(2004:88): \*\* 소년 은 톨스토이의 소설을 근대문학의 전범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고자 했으며, 톨스토이 단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단편소설 문체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

만들어진 한자숙어를 대량으로 사용한 문제'를 '구문직역체'(歐文直譯體)라 불렀는데, '번역어인 한자숙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서구적으로 문명개화한 주체라는 것의 증거'였고, '이러한 한자숙어 없이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지적으로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유사하게, '학지광 , 청춘 등으로 대변되는 1910년대 작가들도 '오락적이고 경박한성격을 띤 줄거리, 사건 중심의 고서설이나 신소설의 기술은 순국문체로 가능하나, 그것이 내면화된 생을 중시하는 근대소설의 시술에서 사색적인 진지함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듯'하고,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 의 문장들에서도 이러한 일종의 '사회적 방언'이 나타난다고 서술한다 (150).

한편, 배개화(2004:419)는 '식민지 시대의 작가들 중에서 조선어를 문학어혹은 예술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중 대표적인 이로 이태준'을 든다. 그는 '문체는 곧 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설가'보다는 더 '문장가'이기를 자신의 문학적 이상으로 삼았는데, '이태준이 〈문장강화〉를 저술한 목적은 현대적인 문장과 문체를 개발함으로써 '국어적 문학'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고자한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이태준의 문체도 번역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박진숙(2003:155)에 의하면, 이태준은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학생 5, 1929.8)을 경개역한다든지, 「오오, 청춘」(신생 1931.10), 「둥지도 없이」(신생 , 1931.10) 등과 같은 작품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이 번역의 원문이 영어였는지 일본어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없지만, 그것이 이태준 문체가 탄생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즉 '번역이 문체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저자는 '명문장으로 평가받는 이태준의 문장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번역이라는 표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스스로만들어낸 문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28) 번역이 이태준 뿐 아니라 다

<sup>28)</sup> 최시한(2003:117): "출간된 후 다시 반세기 이상 지난 오늘까지 읽히고 있는 이 문장강화 만큼 중요한 저술은 찾기 어렵다. 오랜 동안 국어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사실에서 알 수 있 듯이, 이 책은 한국의 근대적 '글〔文〕' 혹은 '글쓰기' 개념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른 작가들의 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 6. 번역투

번역투는 지금까지 다뤄온 문제들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느낌을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문제들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이면서 번역글쓰기를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이 번역투라는 것을 고려할 때 몇 마디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투'를 김정우(2007:63)는 '원천언어(외국어)의제반 특성이 목표언어(모국어)에 간섭을 일으켜 목표언어의 표현에 남긴 일체의 흔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29) 번역투를 '원문구조에 치우친 직역의결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상투적이고 어색한 외국어식 표현'으로 정의하는 오경순(2007)은 번역투의 역기능으로 '번역문의 품질 저하', '번역문의 가독성및 이해력 저하', '번역문의 어휘체계 구조 왜곡', '번역문의 어휘체계의 비속화', '번역문 문체의 다양함에 기여',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 효과', '번역교육의 훌륭한 교재'를 드는데(240-255),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글쓰기를 통한 글쓰기 자체의 개선이나 변혁도 마땅히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번역투가 대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대개 오역이나 서툰 번역과관련되어 언급되어온 우리의 번역문화의 '관습'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사실, 고전 시대 한문번역도 우리말에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지만 우리는 그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이기문(1988:361)은 우리가 글을 쓸 때에나 말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서, 및, 하여금, 바」는 「以, 及, 使, 所」의 한문 직역체 「써, 밋, 흐여곰, 바」에서 온 것으로, 이들의 용법은 비롯 번역문이라 해도 매우 어색한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도 지적하듯이, 이들은 오늘날에는

<sup>29)</sup> 박여성(2003) 참고.

번역체에서 온 것이라는 느낌을 거의 주지 않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국어 속에 깊숙이 용해되어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번역투에 대해 대개 부정적인혐의의 눈초리를 던져온 것에 대해 고종석(1999 : 24)은 언해를 언급하며 '실은 서양말 번역문투나 일본어 번역문투 이전에 한문 번역문투가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한국어 문장의 탄생-발전-정착 과정 그 자체가 번역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30) 번역투를 '원래 어떤 언어에서 전통적 문체와 구별될 만큼 외국어의 영향을 받은 문체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는 복거일(1998: 122-3)은 그 특징과 상징성을 이렇게 지적한다:

번역투는 결코 외생적이지도 이질적이지도 않다. 한국어의 처지와 특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면이란 점에서, 그것은 우리 언어에서 가장 한국적인 부분이다. 번역투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사회를 발전시키려 애쓰면서 정체성을 찾는 우리 사회를 가장 잘 상징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폄하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아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서 그것이 자신에 맡겨진 힘든 과업을 제대로 해내도록 돕는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 글쓰기는 언해 때나 17-8세기 때나 개화기 때의 글쓰기와는 판연히 다르다. 이는 독자들이 느끼는 번역글의 자연스러움이나 유창성 같은 것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점에서 당시의 저작물들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진 결과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번역투'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낯선 것에 대해, 새로운 것에 대한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해서는 아닐까? 그러나 새로운 내용, 낯선 사상을 전래의 것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까? '불순함의 옹호자'를 자처하는 고종석(1999:25)은 자신은 '한문투로 휘어지고 일본 문투로 굽어지고 서양 문투로 닳은 한국어 문장 속에서 풍요와 세련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순수한 토박이말과 토박이 문체(그런 것이 만일 있을 수 있다면 하는 말이지만)

<sup>30)</sup> 고종석(1999:121)은 '외래어가 됐든 번역투가 됐든,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몰아내 한국어를 순화하겠다는 충동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주의적이라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 이루어진 한국어 속'에서라면 '질식할 것 같다'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배타적인 '언어순결주의'에서 벗어나 리쾨르가 말하는 '언어적 환대'에 대해,31) 홍성욱(1997)이 말하는 '잡종의 창조적 존재학'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때이다.32) 이제 번역투도 번역글쓰기의 측면에서, 그리고 '언어와 사유의 관계'의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33)

### 7. 맺음말

언해로부터 불가피하게 시작되어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탐구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우리말 글쓰기는 복잡다단한 오랜 인고의 과정을 거쳤다. 김미형 (2003b:77)은 '우리 문장의 현대화 과정'을 '한문 구조의 영향을 벗어'나고자하는 과정의 역사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이해했고, 심재기(1999:4)도 '국어문체의 역사'를 '한문으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언문일치의 글월로 탈바꿈한 변신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개화기나 그 이후의 글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중국고전소설이나 야담, 그리고 우리 한문소설의 한글 번역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언문일치를 이야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신의 역사'에서 번역글쓰기는 적어도 중세의 언해로부터 그 후의 번역/번안, 그리고 개화기와 그 이후의 번역/번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34》 특히 개화기는 '문명 번역-자국어의 발견-한자의 상대화-언문일치라는 복잡한단계'35)의 대부분에 걸쳐 있는, 애국과 계몽을 위한 번역과 번안에 대한 노력이 치열했던 우리 번역글쓰기 역사의 핵심적 시기이다. 근대적 번역글쓰기의 시기는 이러한 노력들이 신문글쓰기, 문학글쓰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

<sup>31)</sup> 리쾨르(2006) 참고.

<sup>32)</sup> 황호덕(2007:183)도 우리말에서의 '漢文脈과 歐文脈의 잡종화'를 언급하고 있다.

<sup>33)</sup> 황호덕(2007) 참고.

<sup>34)</sup> 이 '변신의 역사'의 탐구를 위해서는 여기에 언급된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는 '조선 후기 서학서의 보급' 문제도 포함된다; 조광(2006) 참고.

<sup>35)</sup> 황호덕(2005:421) 참고.

리되고 다듬어진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36)

우리의 번역문화의 치부가 '오역'과 '비문' 등으로 범벅된 '날림 번역'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오역'과 '비문'이 평자의 주관에 따라 적잖이 달라질 수도 있는, 어느 정도 가변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수십년이 지나도록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번역을 하나의 '글쓰기 문제'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온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번역문화가 척박한 것은, 어떤 번역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전에, '번역글쓰기' 문화 자체가 매우 척박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18세기에 '신문체'가 크게 성했듯이, 그리고 개화기의 격렬한 '문체논쟁'을 통해 볼수 있듯이, 우리의 글쓰기 전통 자체가 착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근자의 젊은 연구자들의 업적을통해 개화기의 신문과 잡지들, 그리고 다양한 문학작품들도 새로운 글쓰기 개발에 큰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 번역은 기존 글쓰기를 넘어선 새로운 글쓰기의 계기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번역', '유려한 번역'도 분명 하나의 필요한 글쓰기이다. 그러나 그것이 번역이 도달해야 할 유일한 목표, 궁극의 목표는 아니고, 그러한 번역이 표현의 모든 필요를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번역도 과감히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때의 글쓰기가 번역투라면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의 선현들이 그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음은 우리 번역글쓰기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번역글쓰기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번역글쓰기, 특히 사유와 언어의 문제를 성찰하는 인문학의 번역글쓰기가 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워져야 한다. 번역인문학은 이러한 번역글쓰기가 적극 모색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방향인데, 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존의 고전 번역들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번역들의 충실한 '번역비평'이다. 이러한 번역비평의 활성화는 번역인문학의 구축뿐 아니라 새로운 번역글쓰기의 활로를 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up>36)</sup> 물론 국어 문장의 현대화가 번안을 포함한 번역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김미형(2004) 참고.

#### 참고문헌

- 강식진(1999). "최세진의 번역 활동". 새국어생활 9-3. 31-54.
- 고종석(1999),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 구인모(1998), "국문운동과 언문일치", 國語國文學 論文集 18, 동국대학교, 67-80
- 권보드래(2003), "한국, 중국, 일본의 근대적 문학개념 및 문학어 형성(1) 소설 〈불여귀〉의 창작 및 번역, 번안 양상을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42, 373-404
- 권용선(2004),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 형성과정 연구- 연설 번역 편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혁래(2004), "조선조 한문소설 국역본의 존재 양상과 번역문학적 성격에 대한 시론". 동양학 36. 1-25.
- 김경수(2007). "廉想涉 小說과 飜譯". 語文研究 134, 221-246.
- 김동언(2001), "〈텬로력뎡〉의 대본과 국어학적 특징", 한국어학 29, 1-27.
- 김동욱(2006), "〈장흥가중회진주삼(蔣興哥重會珍珠衫)〉의 야담(野談)으로의 번 안 양상", 중국문학연구 32, 121-141.
- 김동욱(2007), "중세기 이야기 번역·번안의 제양상과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22, 5-35.
- 김무봉(2004), "불전언해의 몇 가지 문제", 불교학연구 9, 177-211.
- 김미형(2003a), "번역의 틀로 형성되는 문체적 특징 연구 메타 의사소통적 번역의 틀과 의고체 -". 한국언어문화 24, 5-28.
- 김미형(2003b), "구조등가적 번역의 틀과 의고체", 문학한글 17, 77-103.
- 김미형(2004), "국어 현대화와 분석·실용 정신의 상관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25, 119-156.
- 김정우(2007), "번역투의 성격 규명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진단에서 처방까지 -". 번역학연구 8-1. 61-82.
- 김정우(2008),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 김학주(1988), "유교 경전번역의 실상과 문제점", 종교연구 4, 169-174.

- 니린지(2000), "開化期 文體에 끼친 梁啟超의 影響", 中韓人文科學研究 5, 72-106
- 리쾨르, P. 저, 윤성우·이향(역)(2006), 번역론 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사.
- 민관동(2008), "국내 중국고전소설 번역론", 한국번역비평학회 월례학술발표회, 13-30.
- 민현식(1994).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1, 37-61.

1-13

- 박여성(2003), "텍스트언어학의 입장에서 고찰한 '번역투'(飜譯套)의 규명을 위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4 243-293
- 박재연(1993),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 노무
- 박진숙(2003), "이태준 문장론의 형성과 근대적 글쓰기의 의미", 시학과 언어학 6, 135-165.
- 박진영(2004), "일재(一齋) 조중환(趙重桓)과 번안소설의 시대", 민족문학사연구 26. 199-230.
- 박진영(2007a), "소설 번안의 다중성과 역사성 〈레미제라블〉을 위한 다섯 개의 열쇠 - ". 민족문학사연구 33, 213-254.
- 박진영(2007b), "한국의 번역 및 번안 소설과 근대 소설어의 성립 근대 소설의 양식과 매체 그리고 언어 -", 대동문화연구 59, 37-71.
- 배개화(2004), "〈문장강화〉에 나타난 문장 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6, 417-442.
- 배수찬(2006), "국문 글쓰기의 문장 모델 형성 과정 연구 유교 경서와 성서의 언해 양상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 교육 11, 357-386.
- 복거일(1998), 국제화시대의 민족어, 문학과지성사.
- 서은주(2004), "번역과 문학 장의 내셔널리티 해외문학파를 중심으로 -", 현대 문학의 연구 24, 47-76.
- 소재영(1998), "고소설사의 시대구분 문제", 고소설연구 5, 5-36.
- 신지연(2006),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재현성 1910년대의 텍스트를 중심으

- 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안영희(2006) "번역어와 소설문체" 日本語文學 35 267-288.
- 양문규(2005), "1910년대 잡지와 근대단편소설의 형성", 배달말 36, 135-160.
- 양인종(2003), "홍루몽 낙선재 한글 번역본의 번역기법 연구", 동아인문학 3, 33-73
- 여찬영(2006b), "〈대학율곡선생언해(大學栗谷先生諺解)〉의 번역언어학적 연구",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359-387.
- 오경순(2007), "일한 번역의 번역투 고찰 텍스트 번역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 일어일문학연구 61-1, 235-258.
- 유명우(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 번역학연구 3-1, 9-38.
- 윤대석(2007),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 민족문학사연구 33, 312-336.
- 이기문(1988), "번역체의 문제", 국어학연총, 허당 이동림박사 정년퇴임 기념논 총 집문당, 354-362.
- 전성기(2007). "입자적 수사(학)과 파동적 수사(학)". 수사학 6. 165-178.
- 정선태(2004), "번역과 근대 소설 문체의 발견 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대동 문화연구 48, 73-97.
- 정선태(2006), 근대의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 번역·문학·사상 -, 소명출판.
- 정하영(2000). "고소설 연구의 의의와 방향". 고전문학연구 18. 63-75.
- 조광(2006), "조선후기 서학서(西學書)의 수용과 보급", 민족문화연구 44, 199-235.
- 조동일(1999),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 최시한(2003), "국문운동과〈문장강화〉, 시학과 언어학 6, 115 -133.
- 최재목(2004), "인문학, 편집술, 事的 글쓰기 혹은 緣起的 글쓰기", 인문연구 45, 46.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277-294.
- 표정훈, "몇 가지 지형도"、〈http://www.kungree.com/pen/pencil94.htm〉
- 홍성욱(1997), "잡종, 그 창조적 존재학", 창작과 비평, 371-385.
- 홍종선(1996), "개화기 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7, 33-58.
- 황호덕(2005),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타자·교통·번역·에크리튀르 -, 소 명출판.

황호덕(2007), "번역의 근대, 漢文脈의 근대 - 한국 근대 개념어 연구의 과제", 번역비평 창간호, 고려대 출판부, 163-185.

〈핵심어〉번역, 번안, 글쓰기, 문체, 언해, 중국고전, 개화기, 근대, 번역투, 지형도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전화 번호: 02-3290-2103 전자 우편: jonsg@korea.ac.kr

투고논문접수일	2008년 4월 30일
논 문 심 사 일	2008년 5월 30일
게 재 확 정 일	2008년 6월 6일